


| | | | | | |
|---|-------|--|---|--|--|
|  인천광역시 | | 보 도 자 료 | | 재외동포청 최적지 인천 뿐입니다 | |
| | | 배포일자 | 2023년 3월 21일(화) 총 2매 | | |
| 담당 부서 | 하 수 과 | 담 당 자 | • 하수관리팀장 김진수 ☎440-3696 • 담당자 하용호 ☎440-3698 | | |
| 사진(이미지) |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참고자료 |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 | |
| 보 도 시 점 | |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| | | |

인천시, 침수 대비해 올해 하수관로 38^{km} 정비·퇴적물 준설

- 지난해보다 30% 늘어난 259억 투입해 관로 정비·퇴적물 준설에 집중 -

- 침수 취약지역 29개소 집중 추진, 수방 시설 상시 가동체계도 구축 예정 -

인천시가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하수관로 정비와 관로 내 퇴적물 준설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.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3월 21일 ‘2023년 단계별 침수예방대책’을 수립·시행한다고 밝혔다.

이번 대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집중호우 등에 대비해 공공하수도 사전 점검 및 정비 등 선제적 예방사업과 단계적 대응 활동을 통해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수립하게 됐다.

이를 위해 시는 올해 지난해 사업비(198억 원) 보다 약 30% 가량 늘어난 259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빗물받이 확충 등 하수관로 37.7km를 정비할 계획이다. 또, 관로 내 퇴적물 14,003톤(Ton)을 준설한다.

특히, 우기 전까지 침수 취약지역 29개소를 중심으로 침수 예방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고, 각 행정복지센터에 배치된 양수기 등 수방시설을 점검해 상시 가동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.

아울러, 우기 시에는 시 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군·구간 신속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기상특보에 따라 단계별 비상근무를 시행하고, 서해안 만조와 설계빈도를 상회하는 집중호우가 중첩되는 시간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침수 예상 지역에 대한 현장 순찰을 강화할 계획이다.

김인수 시 환경국장은 “침수 피해가 상습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수도 정비 중점 관리지역으로 지정해 체계적으로 하수관로를 정비하겠다”며, “강우 시에는 주택 앞 빗물받이 뚜껑을 덮어 일시적인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드린다”고 말했다.